

숙소 지원 받은 시리아 난민 가족 “다시 살아갈 용기 줬 감사”

서정성 이사장이 전해온 튀르키예 지진 현장 광주 긴급구급팀 르포
초등학교에 의료캠프 차리고 마을 돌며 부상 이재민 치료
의약품·생필품·침낭 등 트럭 1대 분량 구호품 직접 전달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 파견된 (사)아시아 희망나무 긴급 구호팀은 현지 활동 4일째인 지난 18일(현지시간), 피해가 가장 심했던 하타이주 안타키아시에 있는 안타키아 주립병원을 떠나 인근 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에는 이번 대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난 이재민 3000여 명이 모여 생활중이다. 대도시에서 마려던 대규모 이재민 캠프가 아닌 각 가정과 마을회관 등에서 나누어서 생활하고 있고, 주로 친인척을 찾아서 임시로 동거를 한 것이다.

이재민들은 갑작스런 대지진으로 인해 혼비백산한 상태에서 대피하느라 가재도구는커녕 간단한 생필품도 챙기지 못한 채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무너진 집에서 빠져나오면서 골절·타박상·찰과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았지만,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구호팀은 현지활동 3일째 초등학교에 의료캠프를 차리고, 마을을 돌며 이재민들의 치료에 집중했다.

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했음에도 수 일째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던 환자에서부터 머리와 귀,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어린이들,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영덩이와 다리, 어깨 등 온 몸이 타박상을 입은 가족들을 치료했다.

치료를 받은 아스타말(47)씨는 “도시에서 소제한 병원을 대부분이 무너져가니 균열 등이 심해 인근에 대형 텐트 등을 세우고 환자들을 치료중인데 중환자들이 많아 타박상, 찰과상 환자들은 치료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나 먼 형제의 나라 한국에서 온 의료팀들이 그동안 방치해왔던 작은 상처까지 잘 치료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구호팀은 또 마을 보건소장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의약품을 전달하고 방한텐트와 각종 생필품, 침낭 등 2.5톤 트럭 1대 분량의 구호품을 이재민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구호팀은 특히 지진 피해 현장을 떠나 온 다섯 가정에 6개월 동안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숙소를 지원받은 가정 가운데는 이웃 국가 시리아를 떠나 안타키아에 정착해 살던 중 지진을 겪은 난민 가족도 포함돼 있다. 구호팀은 이들 가족이 고향을 떠나와 자립해 지내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기로 했다. 시리아 난민인 아디즈씨는 “고향을 떠나서 지내기 힘든 생활을 해왔는데, 지진으로 또 한번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한국 구호팀들의 도움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져보겠다”고 밝혔다.

서정성 이사장은 “가능한 많은 이재민들이 지진 피해가 복구되고 재건이 완료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실제적인 구호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진이 새벽녘에 발생해 이재민 대부분이 혼비백산해 탈출하는 과정에 옷과 신발, 생활용품, 생리대 등을 챙기지 못했다”면서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구호물품도 조금씩 이재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생필품을 더 많이 보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아시아희망나무 긴급 구호팀은 서정성 이사장(안과 전문의)을 단장으로, 김호중(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이사, 김세아 간호사(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간호사), 임무현·주수빈(형가리 의대생) 등으로 구성됐다.

/정리=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아시아희망나무 서정성 이사장이 16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시 인근 마을에서 눈을 다친 어린이를 진료하고 있다. <아시아희망나무 제공>

전남도, 美원예조경 전시회 참가 순천만정원박람회 홍보

10월 국제농업박람회 소개도

전남도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2023 국제농업박람회 등 올해 주요 국제행사의 해외 방문객 유치활동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 미주사무소는 캘리포니아주 서부에 있는 샌 마티오(San Mateo)에서 지난 10일 열린 캘리포니아 북부 원예조경 전시회(Nor Cal Landscape & Nursery Show)에 참가해 오는 4월부터 열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10월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이벤트를 진행, 조경과 원예산업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올해 43회를 맞는 원예조경 전시회는 캘리포니아와 북미에서 조경과

원에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경기술, 환경을 보호하는 물 절약 원예지식과 에너지 절약식 대 정원에 필요한 조경기술을 공유하는 포럼이 진행됐다. 또 최신 묘목 재배 기술, 유기농 비료와 해충 제거제, 친환경 전동 원예 장비들을 선보이는 전문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전시회를 방문한 미국 조경회사(Brightview Landscape) 부사장 토드 챔버스(Todd Chambers)는 같은 회사 마케팅 디렉터들과 전남도 홍보관을 방문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계획 설명을 듣고 “도시에 위치한 대규모 정원이 매우 인상적이고 안내 자료에 소개된 디자인이 아름다워 꼭 방문하고 싶다”고 반응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도심 일원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리는 2023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17개 국가의 도시가 참여할 계획이며 입장권 31만 장이 사전 예매됐다.

2023 국제농업박람회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를 주제로 4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와 치유농업 비즈니스 행사로 개최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계층 낮을수록 심각한 재난피해”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하층이 중상층보다 1.8배 경험

사회적인 계층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을 겪을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재난에서 회복하는 데에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신종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전반적인 민생 경제 회복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일 발표한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위험사회에서의 건강불평등’(김동진 외)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의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는 작년 5월 4-12일 만 19-74세 18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재난은 태풍·폭설·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교통사고·환경오염·감염병·다중밀집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재난 피해 경험자 중 재난으로 삶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주관적인 사회계층(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집단,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했거나 사회를 신뢰하지 않은 집단 등 사회적 약자에서 특히 높았다.

자연재난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비율은 65-74세의 52.8%로 19-34세의 37.3%보다 80% 가량 높았다. 중졸이하(71.3%)가 대졸이상(47.2%)보다, 주관적 계층 하층(58.0%)이 ‘중상층 및 상층’(32.3%)보다, 자신이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59.8%)이 받는다는 사람(44.0%)보다 높았다.

/연합뉴스

광주시, 자연재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55억 들여 우수저류시설 2곳 설치

광주시는 “대설·한파·집중호우·가뭄 등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 6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우선 행정안전부로부터 6억원을 교부 받아

각 자치구에 소형 저설 장비를 구입하고, 사유시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등)의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질라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55억원을 들여 침수우려 지역인 북구정 사거리와 문동 상당 일원에 우수저류시설 2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광주시 모든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분석하고 위험지구별 저감 대책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는 10년 주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올해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광주시 이 밖에도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 안전 점검 구간을 운영하고, 재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이뤄지며, 재난 취약 시설, 건축공사장, 공공 시설물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주요 점검 대상은 철하·군열·봉곡 등 구조물이나 시설물 결함, 해빙기 안전 관리 실패, 법·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
하실분. 010-3605-5000

지분, 땅,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하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임시총회 공고

제주양씨한림공파총회 회칙 제5장 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일 시 : 2023년 2월 25일(토) 오전 11시 30분
2. 장 소 : 광주 광산구 광산로19번길 30, 이조충정떡갈비 2층
3. 참석대상 : 제주양씨 한림학사 양만용(梁曼容) 후손 중 성년 이상자
4. 총회안건
 - 가. 2020년 1월 13일 이사회에서 통과된 안건
 - 양평중 종회장 인준(회칙 제4장 제9조 1항 :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에서 인준을 얻어야 함) 및 감사 선출(제9조 2항)
 - 회칙 제5장 제15조 2항에 의거 송천 및 한림학사 성역화(사당, 정자 및 생가 복원)를 위한 買入(광산구 박호동 산 131-6, 산131-8번지 1,000평 買入 3억5천 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賣渡(광산구 박호동 461-1번지 168평 賣渡금액 2억5천 원, 잔금은 차기 회장이 추진)
 - 나. 족보 편찬 협의 및 화순군 사평읍 운산리 문산 수중 갯신 사업 진행 보고 등

2023. 2. 20.
제주양씨한림공파총회
연고항존자 양 지 연

병자호란 의병장 한림학사 양만용 병자 청의
4쪽 점자서 친필 격문 행방을 찾습니다. (연락처 : 양평중 010-3355-4117)

전남일보 1976년 10월 16일 의병열전 거조재 양만용 편 보도 사진 참조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